

한국 초등학생의 영어 학습 동기와 영어 학업 성취도: 제 2언어 자아, 국제적인 자세, 가족의 지지의 효과*

이연실**

염강초등학교

안경자

서울교육대학교

Lee, Yeonsil & Ahn, Kyungja. (2013). English learning motivation and English academic achievement of Kore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effects of L2 selves, international posture, and family encouragement. *Modern English Education*, 14(1), 127-152.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Kore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English learning motivation and English academic achievement, in relation to their L2 selves, international posture, and family encouragement.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urvey questionnaires obtained from 247 third grade students and 315 sixth grade students. Ten students from each grade were also interview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 ideal L2 self and family encouragemen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hird and sixth grade students. (2) A high correlation was found in both groups between the ideal L2 self, international posture, family encouragement, and the motivated learning behavior. (3) While the ought-to L2 self negatively influenced the third grade students' English academic achievement, international posture positively influenced the same students' English academic achievement. On the other hand, the ideal L2 self and family encouragemen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ixth grade students' English academic achievement. Overall, the results showed the positive effects of the ideal L2 self, international posture, and family encouragement on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English learning motivation and English academic achievement. Finally, this study provides som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eachers, teacher educators, and parents regarding primary English education. (196 words)

[English learning motivation/English academic achievement/L2 selves/international posture/
family encouragement/영어 학습 동기/영어 학업 성취도/제 2언어 자아/국제적인 자세/가족의 지지]

* 본 논문은 이연실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임.

** 제 1저자: 이연실, 교신저자: 안경자

I. 서론

제 2언어 및 외국어 학습 동기를 설명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Dörnyei(2005)가 제안한 제 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L2 motivational self system)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 미래의 성공적인 영어 학습자를 그리는 자아인 이상적 제 2언어 자아(ideal L2 self)와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영어를 공부하는 자아인 필연적 제 2언어 자아(ought-to L2 self)가 큰 기능을 발휘한다고 한다. 또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영어가 영어권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과도 의사소통할 수 있는 국제어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굳혀가면서, EFL 상황의 한국 초등학생들도 영어를 세계 여러 나라에서 통용되는 국제어로서 인식하는 국제적인 자세가 영어 학습 동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된다. 더불어 초등학생의 경우,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영어 학습에서도 가족이 지지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제 2언어 자아와 관련한 제 2언어 학습 동기에 관한 연구가 많지만 대부분은 유럽의 중고등학생 및 성인들이 연구 대상이며(Al-Shehri, 2009; Csizér & Dörnyei, 2005; Ryan, 2009) 주로 비슷한 연령대별로 묶어 청소년과 대학생 및 성인의 영어 학습 동기 차이를 살펴보는 것을 위주로 하였다. 또한 이들 대부분은 통합적 동기와 이상적 제 2언어 자아와의 관계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Csizér & Kormos, 2009; Ryan, 2009; Taguchi, Magid & Papi, 2009) 기존 제 2언어 학습 동기 연구의 재해석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에게도 제 2언어 자아가 영어 학습 동기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 영어 학습 동기 및 영어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학습자의 영어공부에 대한 부모의 지지가 영어 학습에 영향을 준다(Csizér & Kormos, 2009; Dörnyei, Csizér & Neméth, 2006; Ryan, 2009)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한국 사회에 맞게 가정에서 학생의 영어공부를 지원해 주는 인력을 부모에서 보다 확대하여 친척, 형제, 자매 등 가족의 지지가 영어 학습 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다면 가정에서 영어 학습자의 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는데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 2언어 자아(이상적 제 2언어 자아와 필연적 제 2언어 자아), 국제적인 자세, 가족의 지지가 초등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 및 영어 학업 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봄으로써 초등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 및 영어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요인은 영어 학습에 대한 학생의 꾸준한 노력을 지칭하는 동기화된 학습 행동 혹은 동기화된 제 2언어 행동으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많은 연구에서 제 2언어 학습 동기의 기준 측정으로 사용된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의 인지 및 정서적 상태는 차이가 있으므로 영어 학습 동기 및 영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학년별로 서로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나이 차이를 극대화하여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3학년과 예비중학생인 6학년의 영어 학습 동기 요인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학생들은 제 2언어 자아, 국제적인 자세, 가족의 지지, 동기화된 학습 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
2.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학생들 각각 제 2언어 자아, 국제적인 자세, 가족의 지지, 동기화된 학습 행동 서로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3.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학생들 각각 제 2언어 자아, 국제적인 자세, 가족의 지지 중 영어 학업 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1. 제 2언어 학습 동기

지난 60여년간 제 2언어 학습 동기는 꾸준히 연구되어 왔는데,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제 2언어 학습 동기를 주로 정량적인 것으로 보았으나 1990년대는 정성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제 2언어 학습 동기를 다룬 이론으로는 2000년대 이전까지는 사회교육 모형(socio-educational mode)과 자기 결정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이 주를 이루었으며, 근래에는 제 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가 대표적이다.

사회교육모형은 통합성(integrativeness)과 도구성(instrumentality)을 제 2 언어 학습 동기의 주요 요인으로 보았다. 이 중 통합성은 제 2언어 문화권에 보다 가까이 가고자 제 2언어를 배우려는 진정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으며, 도구성은 좋은 직업을 얻는 것과 같은 좀 더 실용적인 도구적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언어를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두 가지 중 Gardner(1985)는 통합성을 더 중요한 제 2언어 학습 동기의 요소로 보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Gardner의 통합적 동기는 제 2언어 학습 동기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다루어졌으나 캐나다와 같은 ESL 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므로 EFL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에 제 2언어 학습에 대한 동기를 보다 역동적인 것으로 보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등장한 것이 자기 결정 이론이다(Vandergrift, 2005). 자기 결정 이론에서는 동기가 발생하는 것이 학습자 내부에서 우러나오는 내적 동기와 외부의 보상으로부터 발생하는 외적 동기 및

동기가 매우 부족한 무동기(amotivation)가 있다. 이들은 각각 별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다고 본다(Ryan & Deci, 2000).

이상에서 살펴볼 때, 2000년대 이전까지의 제 2언어 학습 동기는 주로 통합성과 도구성 혹은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등으로 학습자의 제 2언어 학습 동기를 양분하여 이해하려는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경험 및 환경이 그들의 제 2언어 학습 동기와 어떠한 관련이 있을지를 살펴보려는 노력이 대두되었다.

이에 Dörnyei(2009)는 제 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를 고안하였고, 3가지 하위 구성요인으로 이상적 제 2언어 자아(ideal L2 self), 필연적 제 2언어 자아(ought-to L2 self), 제 2언어 학습 경험(L2 learning experience)을 들었다. 이상적 자아는 자신의 이상적인 L2 학습자로서의 모습을 그리고 이를 추구하고자 제 2언어를 학습하지만, 필연적 자아는 제 2언어 공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초래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고자 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의무감에서 제 2언어를 공부하는 것이다. 제 2언어 학습 경험은 제 2언어를 학습하는 환경 및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 이로써 제 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는 기존의 통합성과 도구성,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제 2언어 학습 동기의 역동성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적 제 2언어 자아와 필연적 제 2언어 자아는 고정되어 있다기 보다는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학습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 환경 및 학습자의 이전 경험도 제 2언어 학습 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2. 제 2언어 학습 동기, 제 2언어 학업 성취도 및 동기 요인

제 2언어 학습 동기와 제 2언어 능력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주로 제 2언어 학습 동기와 제 2언어 능력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얻은 연구들(Murray, 2007; T. I. Pae, 2007; E. M. Yang, 2011)이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연구(Vandergrift, 2005)도 있다.

제 2언어 학습 동기와 연령간의 연구에서도 역시 다양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Kormos와 Csizér(2008)는 성인, 중고등학생, 대학생 집단 순으로 이상적 제 2언어 자아가 강하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윤지영과 김태영(2012)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내적동기, 통합적 동기, 이상적 제 2언어 자아 및 필연적 제 2언어 자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학습자의 나이에 따라 영어 학습 동기 요인이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모든 동기 요인들이 나이에 항상 비례하거나 반비례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제 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와 관련하여 EFL 환경의 영어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본 연구와 관련이 높은 연구로, (1)제 2언어 자아와 영어 학습

동기 요인과의 관계, (2)제 2언어 자아와 영어 학습 동기간의 관계, (3)영어 학습 동기에 영향을 주는 제 2언어 자아 등의 동기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

먼저, 제 2언어 자아와 영어 학습 동기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상적 제 2언어 자아와 동기화된 학습 행동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J. S. Yang & T. Y. Kim, 2011)는 연구와 없다(Papi & Abdollahzadeh, 2012)는 연구가 있다. J. S. Yang과 T. Y. Kim(2011)은 중국, 일본, 한국, 스웨덴 학생들의 제 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와 지각 학습 유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이상적 제 2언어 자아와 동기화된 제 2 언어 행동 사이의 상관관계는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필연적 제 2언어 자아는 설문 문항에서 제외되어 동기화된 제 2 언어 행동과의 관계는 알 수 없었다. 한편, Papi와 Abdollahzadeh(2012)는 학생의 동기와 제 2언어 자아를 이란의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알아본 결과, 동기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이상적 제 2언어 자아의 평균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필연적 제 2언어 자아의 평균은 동기가 낮은 집단에서 더 높았는데, 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 2언어 자아와 영어 학습 동기 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 특히 제 2언어 자아와 본 연구에서 살펴볼 국제적인 자세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국제적인 자세는 학습자가 영어를 국제어로서 인식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EFL 상황에 있는 영어 학습자의 동기는 특정 영미권 문화에의 통합성이라는 관점보다는, 영어를 사용하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 대한 태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유용하다고 본다. Yashima(2002)는 국제적인 자세를 세계인들과 친해지려는 정도(intergroup approach tendency), 외국에서 직업을 갖거나 활동하는 것에 대한 관심(interest in international vocation and activities),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관심(interest in foreign affairs)이라는 하위범주를 설정하여 설명하였다. 제 2언어 자아와 국제적인 자세와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국제적인 자세가 이상적 제 2언어 자아와 높은 관련이 있다는 결과(Kormos & Csizér, 2008; Yashima, 2009)가 있는 반면, 필연적 제 2언어 자아도 국제적 자세와 관련이 있다(C. Kim, 2011)는 결과도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Kormos와 Csizér(2008)는 헝가리의 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성인 집단을 대상으로 이상적 제 2언어 자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세 집단에서 국제적인 자세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냈다. 이러한 결과는 뒤이은 Csizér와 Kormos(2009)의 연구에서도 뒷받침된다. 한편 한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C. Kim(2011)의 연구에서는 이상적 제 2언어 자아뿐만 아니라 필연적 제 2언어 자아 또한 국제적 자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어 학습 동기에 영향을 주는 제 2언어 자아 등의 동기 요인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Y. K. Kim과 T. Y. Kim(2011)은 한국 중고등학생의 지각 학습 유형(perceptual learning style)과 제 2언어 학습 동기에 대해 연구하였다. 동기화된 제 2언어 행동(motivated L2 behavior)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상관없이 이상적 제 2언어 자아가 동기화된 제 2언어 학습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남학생 집단에서는 이상적 제 2언어 자아, 필연적 제 2언어 자아, 시각적 학습 유형, 신체적 학습 유형 순서로, 여학생 집단에서는 이상적 제 2언어 자아, 시각적 학습 유형, 신체적 학습 유형, 청각적 학습 유형 순으로 학습 동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Kormos와 Csizér (2008)에서는 헝가리의 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성인 집단을 대상으로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동기화된 학습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본 결과, 세 집단에서 모두 언어 학습 태도와 이상적 제 2언어 자아 순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연적 제 2언어 자아가 신뢰도 분석 결과 신뢰도가 낮아 제외되어 필연적 제 2언어 자아와 동기화된 학습 행동 간의 관계는 알 수 없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가족의 지지와 유사한 부모의 지지는 자녀의 영어 학습 동기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Csizér & Kormos, 2009; Dörnyei 외 2인, 2006; Ryan, 2009)가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이 서로 상반되는 결과들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영어 학습 동기 요인을 한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심도 있게 연구하였다. 초등학생들은 나이 범위가 크고 빠른 성장 단계에 있어 학년 간 인지적, 정의적 발달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종 영어 학습 동기 요인과 영어 학습 동기 및 영어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차이를 좀 더 뚜렷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저학년에서는 3학년 학생들을, 고학년에서는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영어 학습 동기 요인으로는 선행 연구에서 다루어졌던 이상적 제 2언어 자아, 필연적 제 2언어 자아, 국제적인 자세를 포함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다른 부모의 지지를 보다 확대한 가족의 지지를 영어 학습 동기 요인으로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 및 영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어 학습 동기 요인을 심도 있게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와 실질적인 영어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연구 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2회의 사전 조사를 거쳐 본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1차 사전 연구는 본 연구 대상에 참여하지 않는 서울 소재 Y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학생 각 5명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2차 사전 연구는 본 연구 대상에 참여하지 않는 경기도 소재 K 초등학교 3학년 학생 28명과 S 초등학교 6학년 학생 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참여 학생 중 각 학교별로 3학년과 6학년 학생 각각 2명씩 총 4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2회에 걸친 사전 연구를 통해 설문지 및 인터뷰의 항목을 수정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 300명과 6학년 학생 330명, 총 630명이다. 3학년은 총 5개 학교, 6학년은 총 10개 학교이며, 이 중 3학년과 6학년이 같은 학교인 곳은 2개로 총 13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630명 중, 설문지 답변이 무성의하거나 담당 교사로부터 학생의 학업 성취도 점수를 받지 못한 학생은 제외하였다. 따라서 실제 본 연구에는 3학년 학생 247명, 6학년 학생 315명, 총 562명의 설문을 분석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각 학년별로 10명씩 실시하였다. 심층 인터뷰 대상은 인터뷰 실시 전 설문지를 매우 성실하게 응답한 학생들 중에서 연구자가 각 학교별로 2~3명 학생을 후보로 정한 뒤, 영어교과전담 교사나 담임교사를 통해 동의를 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설문지와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Csizér와 Kormos(2009), Dörnyei 외 2인(2006), C. Kim(2011), Ryan(2009), Taguchi 외 2인(2009)을 바탕으로 리커트식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1차 사전 연구에서 학생들이 설문 문항 수가 많음에 따라 집중력이 떨어져 뒤로 갈수록 무성의하게 답하는 것을 발견하고 문항 수를 64문항에서 39문항으로 줄였다. 특히 3학년 학생의 경우, 이해하지 못하는 어휘가 있었으므로 이를 학생 수준에 맞게 바꾸었다. 예를 들어, 리커트식 5점 척도에서 '보통이다'라는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일 때 보통으로 기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으므로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로 풀어서 설문지에 넣었다. 2차 사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 문항에서는 필연적 제 2언어 자아와 관련된 문항을 수정하였으며, 인터뷰 항목은 학생 본인의 솔직한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질문 순서를 보다 자연스럽게 정리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리커트식 척도로 답하도록 구성된 객관식 총 33문항과 개인적인 정보 및 영어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기 위한 주관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부록 1 참고). 리커트식 5점 척도 문항은 이상적 제 2언어 자아(6문항; 9, 11, 19, 21, 26, 31번), 필연적 제 2언어 자아(6문항; 10, 12, 16, 20, 27, 30번), 가족의 지지(5문항; 3, 13, 23, 25, 33번), 국제적인 자세(4문항; 4, 14, 24, 32번), 동기화된 학습 행동(7문항; 7, 15, 17, 18, 22, 28, 29번)으로 구성하였다. 추가로 학생들이 연구자가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별 범주를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연구 문제와 관련 없는 문항 5개를 더 넣어 총

33문항을 무작위로 섞었으며 학생이 일관된 태도로 응답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긍정적인 서술문과 함께 부정적인 서술문도 넣었다.

자료 수집 후, 본 연구 설문지의 영어 학습 동기 요인을 비롯한 각 항목에 대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 연구(Kormos & Csizér, 2008; Taguchi 외 2인, 2009)를 바탕으로 크론바하 알파 계수 0.60 이상인 문항만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3학년에서는 2문항(25, 32번)을 6학년에서는 1문항(32번)을 제거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interview) 형식으로 I. Kim(2008)과 Lamb(2007)을 참고하였으며 2차 사전 연구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질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부록 2 참고). 심층 인터뷰는 학생의 동의를 구한 뒤 정밀한 자료 분석을 위해 녹음하였다. 학생들의 영어 학업 성취도 점수는 각 학교별로 실시되는 1학기 기말 영어 지필 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하였다. 영어 학업 성취도 평가에는 교육과정상 3학년은 듣기 영역이, 6학년은 듣기, 읽기 및 쓰기 영역이 포함되었다. 성취도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설문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첫째,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의 영어 학습 동기 요인(제 2언어 자아, 국제적인 자세, 가족의 지지) 및 동기화된 학습 행동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년별로 각 항목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한 뒤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둘째,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의 영어 학습 동기 요인 및 동기화된 학습 행동 서로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Pearson correlat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학습자들의 영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각 학년별로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녹음된 심층 인터뷰 내용은 전사를 하였으며 설문지 주관식 응답과 함께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영어 학습 동기 요인과 영어 학습 동기 및 영어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알아보았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영어 학습 동기 요인 및 동기화된 학습 행동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의 영어 학습 동기 요인 및 동기화된 학습 행동을 각 항목별로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어 학습 동기 요인 중에서 6학년의 이상적 제 2언어 자아($p < 0.05$)와 가족의

지지($p<.001$)가 3학년보다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3학년보다 6학년의 이상적 제 2언어 자아가 더 높다는 것을 통해 6학년 학생이 3학년 학생들에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미래에 영어를 사용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설문지에서 학생의 배경 정보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6학년 학생들이 3학년 학생들보다 영어로 이메일 쓰기, 외국 여행, 어학 연수 프로그램 참여 등 실제로 영어 사용에 대한 경험이 많았다. 또한 가족의 지지가 6학년 학생이 3학년 학생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설문지에 응답한 6학년 학생들의 가족이 학생의 영어 공부를 지지해주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
영어 학습 동기 요인 및 동기화된 학습 행동

종속변수	학년	M	SD	<i>t</i>	<i>p</i>
이상적 제 2언어 자아	3학년(N=247)	3.07	1.13	-2.312*	.021
	6학년(N=315)	3.28	1.02		
필연적 제 2언어 자아	3학년(N=247)	2.40	.92	-1.349	.178
	6학년(N=315)	2.50	.78		
가족의 지지	3학년(N=247)	3.17	1.09	-3.688***	.000
	6학년(N=315)	3.47	0.82		
국제적인 자세	3학년(N=247)	3.47	1.11	-.572	.568
	6학년(N=315)	3.53	1.00		
동기화된 학습 행동	3학년(N=247)	2.96	.94	1.407	.160
	6학년(N=315)	2.86	.82		

* $p<.05$, *** $p<.001$

한편, 위 표에 나타나 있듯이, 필연적 제 2언어 자아, 국제적인 자세는 6학년이 3학년보다 평균이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화된 학습 행동은 3학년이 6학년보다 평균이 높았지만, 이 또한 유의미한 차이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전반적으로는 국제적인 자세가 3학년과 6학년에서 각각 다른 항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3.47, 3.53), 이로서 두 학년 집단에서 모두 영어를 국제어로서 인식하는 자세가 높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필연적 제 2언어 자아는 양 집단에서 가장 평균이 낮았다(2.40, 2.50). 이는 학생들이 영어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영어를 공부하는 것(필연적 제 2언어 자아)보다는 성공적인 영어 학습자로서의 자신을 그리며(이상적 제 2언어 자아) 공부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동기화된 학습 행동과 영어 학습 동기 요인 간의 상관관계

각 영어 학습 동기 요인들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영어 학습 동기와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제 2언어 자아, 가족의 지지, 국제적인 자세와 동기화된 학습 행동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다음 표 2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3학년과 6학년 학생들 모두 동기화된 학습 행동과 유의미하게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이상적 제 2언어 자아, 가족의 지지, 국제적인 자세였다. 그 중 3학년은 이상적 제 2언어 자아(.736, $p<.001$), 6학년은 국제적인 자세(.683, $p<.001$)가 동기화된 학습 행동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3학년과 6학년 모두 특히 이상적 제 2언어 자아와 국제적인 자세가 동기화된 학습 행동과 유의미하게 상관관계가 높았다(표 2 참조).

표 2
동기화된 학습 행동과 영어 학습 동기 요인 간의 상관관계

	이상적 제 2언어 자아		필연적 제 2언어 자아		가족의 지지		국제적인 자세	
	3학년	6학년	3학년	6학년	3학년	6학년	3학년	6학년
동기화된 학습 행동	.736*** (.000)	.663*** (.000)	.279*** (.000)	.174** (.002)	.590*** (.000)	.533*** (.000)	.706*** (.000)	.683*** (.000)

** $p<.01$, *** $p<.001$

이를 통해 3학년과 6학년의 경우 미래에 성공적인 영어 사용자로서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 이상적 제 2언어 자아와 영어가 국제어로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영어를 실제로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행동과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3학년과 6학년 모두 학생의 영어 학습에 대한 가족의 지지와 영어 학습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행동도 상호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연적 제 2언어 자아는 3학년과 6학년에서 모두 이상적 제 2언어 자아에 비해 실제로 영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행동과 상관관계가 낮았다. 이를 통해 학습자에게 맹목적으로 영어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의무감으로 영어 학습을 시키는 것은 실제로 학습자가 동기가 부여되어 영어 학습을 꾸준히 하는 행동과 관련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영어 학습 동기 요인 간의 상관관계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 요인들 간에 서로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국제적인 자세와 가족의 지지는 3학년과 6학년에서 모두 이상적 제 2언어 자아와 매우 높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필연적 제 2언어 자아와는 매우 약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표 3
영어 학습 동기 요인 간의 상관관계

	이상적 제 2언어 자아		필연적 제 2언어 자아		가족의 지지	
	3학년	6학년	3학년	6학년	3학년	6학년
필연적 제 2언어 자아	.303*** (.000)	.278*** (.000)	-	-	-	-
가족의 지지	.539*** (.000)	.570*** (.000)	.185** (.003)	.170** (.002)	-	-
국제적인 자세	.832*** (.000)	.764*** (.000)	.227*** (.000)	.167** (.003)	.506*** (.000)	.552*** (.000)

** $p < .01$, *** $p < .001$

이는 헝가리의 청소년, 대학생,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영어 학습 동기를 연구한 Kormos와 Csizér(200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만, 한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C. Kim(2011)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다. C. Kim의 연구에서는 필연적 제 2언어 자아(.50, $p < .01$)도 이상적 제 2언어 자아(.53, $p < .01$)와 비슷한 수치로 국제적인 자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같은 한국 상황에서도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국제적인 자세와 제 2언어 자아와의 관계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한국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학생들이 영어를 국제어로서 인식하는 정도는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 영어를 학습하는 필연적 자아보다 미래 성공적인 영어 사용자로서 이상적인 자아를 그리는 것과 더 관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의 지지도 양 집단에서 모두 이상적 제 2언어 자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가족 구성원이 학생에게 영어 학습에 대해 신경을 더 많이 써 줄 때, 그 부담감으로 인해 필연적 자아 또한 관련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나, 이와는 상반된 결과였다. 가족들이 학생의 영어 학습에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 학생이 부담으로 느끼기 보다는 자신의 이상적인 영어 사용자로서의 발전을 위한 격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학년과 6학년 학생의 인지 및 정의적 차이가 있어 영어 학습 동기 요인들 간의 관계가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이는 학년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3학년과 6학년 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의 향상을 위해서는 학년에 상관없이 제 2언어 자아, 국제적인 자세 및 가족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4. 영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어 학습 동기 요인

영어 학습 동기 요인 중 영어 학업 성취도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로 각 학년별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3학년은 최종 모델은 표 4와 같으며 12.2%($R^2=.122$)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표 4
3학년의 영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어 학습 동기 요인

모형	변수	B	β	t	p	R	R^2	ΔR^2	ΔF	F
1	필연적 자아	-4.063	-.229	32.163***	.000	.229	.053	.053	13.613***	13.613
2	필연적 자아	-5.148	-.291	4.721***	.000	.349	.122	.069	19.274***	16.951
	국제적 자세	3.990	.270	4.390***	.000					

*** $p<.001$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영어 학업 성취도에는 필연적 제 2언어 자아($\beta=-.291$)가 부정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그 다음으로 국제적인 자세($\beta=.270$)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나온 결과에 의하면 3학년의 영어 학습 동기와 필연적 제 2언어 자아와의 상관관계가 약했으므로 영어 학업 성취도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는 달랐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영어 학습 동기와 관련하여 이상적 제 2언어 자아의 역할을 강조해 왔기에 이처럼 3학년 학생들의 영어 학업 성취도에 이상적 제 2언어 자아보다 필연적 제 2언어 자아가 더 영향을 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경우, 의무나 압박에 의해 영어 학습의 실패를 피하기 위해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영어 학업 성취도에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영어를 세계 공용어로서 인식하는 자세가 높은 것은 3학년의 영어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나이가 어린 학습자에게 영어가 전 세계 사람들과 의사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언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영어 학습 동기를 강화하는 것은 영어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것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표 5를 보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이상적 제 2언어 자아($\beta=.230$)와 가족의 지지($\beta=.180$)가 영어 학업 성취도를 가장 잘 예측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6학년의 영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어 학습 동기 요인

모형	변수	B	β	t	p	R	R ²	ΔR^2	ΔF	F
1	이상적 자아	5.791	.333	6.240	.000	.333	.111	.111	38.935***	38.935
2	이상적 자아	4.007	.230	3.587***	.000	.364	.132	.022	7.860**	23.824
	가족의 지지	3.894	.180	2.804**	.005					

** p < .01, *** p < .001

표 5에 의하면, 3학년 학생들과는 달리 6학년 학생들에게 있어, 필연적 제 2언어 자아와 국제적인 자세는 영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 모형은 13.2%(R²=.132)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6학년 학생의 경우, 이상적 제 2언어 자아뿐만 아니라 영어 학습에 대한 가족의 지지가 높은 것도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영어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6학년 학생들에게 가족의 관심과 지지가 더욱 필요함을 시사한다.

위 결과를 보면, 3학년과 6학년 학생의 영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영어 학습 동기 요인이 서로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3학년에서 영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이상적 제 2언어 자아보다 필연적 제 2언어 자아의 역할이 보다 부각된 것은 나이 어린 학습자일수록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주변인들을 더욱 의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Higgins(1987)는 필연적 자아는 주로 의미 있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6학년보다 더 어린 3학년의 경우 가족이나 선생님, 친구들을 많이 의식하며, 이것이 영어 학습에도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3학년 학생이 어린 나이임에도 영어를 국제어로서 인식하면서 영어를 학습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5. 인터뷰 결과

설문 결과를 질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설문지에 응답한 학생들 중에서 3학년과 6학년 학생 각 10명씩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전반적으로 양적인 설문조사 결과가 인터뷰 결과로 뒷받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양 집단의 답변에서 질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인터뷰에 응답한 학생들의 영어 학업 성취도 점수는 표 6과 같으며, 표 7은 인터뷰 응답 결과이다.

표 6
인터뷰 대상 학생의 영어 학업 성취도 점수

	3학년										6학년									
	3A	3B	3C	3D	3E	3F	3G	3H	3I	3J	6A	6B	6C	6D	6E	6F	6G	6H	6I	6J
점수	35	90	35	95	40	100	100	85	50	80	100	100	65	100	100	100	99	86	83	96
평균	71										93									

표 7
인터뷰 대상 학생의 인터뷰 응답 결과

항목	3학년	6학년
동기화된 학습 행동과 영어 학습 동기 요인 간의 관계	이상적 제 2언어 자아: 3A, 3D, 3E, 3F, 3G, 3I(6명) 필연적 제 2언어 자아: 3J(1명) 국제적인 자세: 3B, 3D, 3H(3명) 모르겠음: 3C(1명) (*밀줄: 이상적 제 2언어 자아와 국제적인 자세를 둘 다 언급한 학생: 1명)	이상적 제 2언어 자아: 6A, 6B, 6C, 6D, 6E, 6F, 6G, 6H, 6I, 6J(10명) 국제적인 자세: 6A, 6B, 6C, 6D, 6E, 6F, 6G, 6I, 6J(9명) (*밀줄: 이상적 제 2언어 자아와 국제적인 자세를 둘 다 언급한 학생: 9명)
이상적 제 2언어 자아	있음: 3A, 3B, 3C, 3D, 3E, 3F, 3G, 3J(8명) 없음: 3H, 3I(2명)	있음: 6A, 6B, 6D, 6E, 6F, 6G, 6H, 6I, 6J(9명) 없음: 6C(1명)
필연적 제 2언어 자아	있음: 3C, 3E, 3H, 3I, 3J(5명) 없음: 3A, 3B, 3D, 3F, 3G(5명)	있음: 6C, 6I(2명) 없음: 6A, 6B, 6D, 6E, 6F, 6G, 6H, 6J(8명)
가족의 지지	있음: 3A, 3B, 3D, 3F, 3G, 3H, 3I, 3J(8명) 없음: 3C, 3E(2명)	있음: 6A, 6B, 6D, 6E, 6F, 6G, 6H, 6I, 6J(9명) 없음: 6C(1명)
동기화된 학습 행동	있음: 3A, 3B, 3D, 3F, 3G, 3H, 3I, 3J(8명) 없음: 3C, 3E(2명)	있음: 6A, 6B, 6D, 6E, 6F, 6G, 6H, 6I, 6J(9명) 없음: 6C(1명)

인터뷰 결과 3학년과 6학년 학생들의 제 2언어 자아, 가족의 지지, 국제적인 자세 및 동기화된 학습 행동은 질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한편 3학년과 6학년 모두 동기화된 학습 행동과 제 2언어 자아, 국제적인 자세, 가족의 지지는 서로 관련이 있었으며 특히 6학년에서는 이상적 제 2언어 자아가 국제적인 자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3학년의 경우는 필연적 제 2언어 자아가 부정적인 요인으로, 6학년은 이상적 제 2언어 자아가 긍정적인 요인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 동기화된 학습 행동 및 영어 학습 동기 요인 간의 상관관계

동기화된 학습 행동과 영어 학습 동기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영어를 왜 열심히 공부 하고 있나요? 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인터뷰에 응한 3학년 학생 10명 중 6명, 6학년 학생 10명 중 10명 모두 주요 영어 학습 동기를 이상적 제 2언어 자아와 관련하여 언급하였다. 특히 6학년 학생들은 나중에 커서 자신의 꿈과 관련하여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장래희망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이상적 제 2언어 자아를 보여주었다. 특이했던 점은 3학년 학생의 경우, 나중에 외국인이 길을 물어보면 영어로 길을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5명(3A, 3D, 3E, 3F, 3G)이나 한 반면, 6학년 학생들은 그와 같은 답변을 한 학생이 없었다. 또한 3학년 학생들의 이상적 제 2언어 자아는 한국 내에서 영어를 쓰는 모습도 보이는 반면, 6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주로 외국에 나가서 영어를 쓰는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 이상적 제 2언어 자아의 활동 배경이 국내 혹은 국외로 학습자의 나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3학년 학생 3명, 6학년 학생 9명이 영어 학습 동기와 관련된 질문에 “영어가 지금 세계의 공용어 라고 답하는 등 국제어로서 영어를 인식하는 답변을 하였다. 6학년 학생들은 영어를 국제어로서 인식하는 모습을 3학년 학생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이 보여주었다.

3학년과 6학년 인터뷰 대상 학생 모두 영어 학습 동기에 관해 이상적 제 2언어 자아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으며 다음으로 국제적인 자세를 언급하였다는 점은 일치하였다. 이를 통해 인터뷰에 응한 3학년과 6학년 학생들은 영어 학습 동기 요인으로 이상적 제 2언어 자아와 국제적인 자세를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적 제 2언어 자아를 언급한 학생 중에는 국제적인 자세를 동시에 언급한 학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상적 제 2언어 자아와 국제적인 자세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터뷰 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3학년 학생 10명 중에서 오직 1명(3D)만이 영어 학습 동기에 관련된 질문에 이상적 제 2언어 자아와 국제적인 자세를 동시에 언급한 반면, 6학년 학생은 10명 중 9명이나 두 가지를 함께 언급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6학년 학생이 3학년 학생보다 국제적인 자세를 더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영어 학습 동기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이상적 제 2언어 자아

학생들의 이상적 제 2언어 자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미래에 영어를 쓰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나중에 영어를 실제로 쓸 일이 있을 것 같나요? 어떤 상황인지 얘기해 보세요”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3학년에서는 8명, 6학년에서는 9명이 이상적 제 2언어 자아를 보여주었다.

이상적 제 2언어 자아와 관련된 질문에 대부분의 3학년 학생들은 외국인과의 일상 대화할 때의 상황을 이야기한 반면 많은 6학년 학생들은 자신의 장래 희망과 관련 지어 구체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장면을 진술하였다. 6G는 스튜어디스로서, 6I는 요리사로서, 6J는 CEO로서의 장래 모습을 그리며 구체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생각하고 있었다. 3학년 학생 중 3C와 3E도 장래희망이 디자이너이지만 디자이너로서 영어를 사용한다는 말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 반면, 6학년 학생 6E는 “디자이너가 되어 상품을 설명할 때 라고 보다 자세하게 언급하였다. 인터뷰 대상 6학년 학생 10명 중 1명(6D)만이 이상적 제 2언어 자아와 관련된 질문에 나중에 “여행갈 때 영어를 쓸 것 같다고 답하였다. 즉 인터뷰 대상 6학년 학생들의 이상적 제 2언어 자아는 장래 희망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6학년 학생들과 3학년 학생들의 이상적 제 2언어 자아가 질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인터뷰 결과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는 6학년 학생들은 3학년 학생들에 비해 자아의 정체성을 더욱 확립해 가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기 위해 보다 현실적인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필연적 제 2언어 자아

초등학교 3학년 학생과 6학년 학생의 영어 학습 동기 요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필연적 제 2언어 자아를 살펴보기 위해 “영어 때문에 걱정해 보거나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3학년에서는 5명, 6학년에서는 2명이 ‘그렇다’고 하였다. 3학년 학생이 6학년 학생에 비해 필연적 제 2언어 자아를 드러내는 학생이 많았다.

필연적 제 2언어 자아를 보이는 학생들 중에서는 낮은 영어 점수로 인해 친구들에게 창피함을 당한 경험, 혹은 영어 공부에 대한 ‘부모님의 잔소리’를 언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E는 “친구들에게 영어를 못한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부모님께 영어 학원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고 답했다. 한편,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고 나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습자마다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앞선 설문 결과에서 필연적 제 2언어 자아가 다른 영어 학습 동기 요인들에 비해 동기화된 학습 행동과 매우 약한 상관관계를 보인 것을 인터뷰 결과로서 확인할 수 있었다.

4) 가족의 지지

가족의 지지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서 영어 공부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지, 어떻게 도와주는지 를 물었다. 이에 3학년에서 8명, 6학년에서 9명이 영어 학습에 대해 가족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지지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1)가족원이 먼저 학생의 영어 학습을 이끌어주는 리더 유형과 (2)학생이 모르는 것을 물어볼 때만 알려주는 조연자 유형이 있었다. 3학년에서는 리더 유형이 더 많은 반면, 6학년에서는 조연자 유형이 더 많았다. 리더 유형에서는 학생의 영어 학습을 도와주는 가족원이 부모, 삼촌 등 학생의 손윗사람이었으나 조연자 유형에서는 손윗사람뿐만 아니라 손아랫사람인 동생도 있었다.

5) 동기화된 학습 행동

동기화된 학습 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요즘은 학교 수업 외에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고 있나요?”라고 물어보았다. 학습자가 실제로 동기가 부여되어 영어를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해 면담한 결과 3학년에서는 8명, 6학년에서는 9명 학생이 동기화된 학습 행동을 보여주었다. 동기화된 학습 행동의 빈도가 3학년과 6학년이 수적으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질적으로는 차이를 보였다. 3학년 학생의 경우, 듣기와 말하기 위주로 공부하는 반면, 6학년 학생들은 읽기, 쓰기 및 문법 위주로 공부하고 있었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읽기와 쓰기의 비중이 많아지는 교육과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영어 학습 방법으로는 3학년과 6학년 모두 영어 학원 수업이 각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밖에도 영어 교과서 CD로 공부하기, 학교 방과후 영어 수업, 영어 학습지 풀기, 전화 영어, 영어 독서, EBS 영어방송 청취 등이 있었으며 대부분 이를 계획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인터뷰에서는 3학년과 6학년의 동기화된 학습 행동뿐만 아니라 각 영어 학습 동기 요인과 동기화된 학습 행동 간의 관계도 살펴볼 수 있었다.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답한 3학년 학생 8명과 6학년 학생 9명은 인터뷰에서 이상적 제 2언어 자아와 국제적인 자세를 모두 보여주거나 둘 중에 한 가지를 보여주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가족의 지지도 높았다. 이로써 3학년과 6학년에서 동기화된 학습 행동이 이상적 제 2언어 자아, 국제적인 자세 및 가족의 지지와 상관관계가 높다는 설문 결과가 인터뷰로도 뒷받침 되고 있다.

6) 영어 학업 성취도와 영어 학습 요인 간의 관계

3학년 설문 결과에서 필연적 제 2언어 자아가 영어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영어 학습 동기 요인으로 나타난 것도 인터뷰 결과를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학생 3C, 3I의 경우는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영어를 공부해요 라고 하였고, 학생 3E는 “친구들에게 영어 못한다고 창피당하기 싫어요. 똑똑해지고 싶어요 라고 하였다. 이처럼 필연적 제 2언어 자아가 강한 학생 3C, 3E, 3I의 경우는 영어 학업 성취도 점수가 낮은 편이었다. 이를 통해 3학년 학생들에게 필연적 제

2언어 자아는 영어 학업 성취도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밖에도 3학년 설문 결과에서 영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영어 학습 동기 요인으로 이상적 제 2언어 자아가 제외된 것은 인터뷰 결과를 통하여 짐작해 볼 수 있었다. 영어 학업 성취도 점수가 낮은 학생 3A의 경우 미래에 영어를 쓰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네. 제가 장래희망이 가수잖아요, 거기서 작곡하는 사람이 영어를 넣어줄 것 같아요. 랩 아님 노래 하다가 워, 투, 쓰리 할 때 나올 것 같아요. 영어로 자세하게 ‘이건 땡땡 뭘 무슨 곡입니다’라고 설명할 때요”라고 거침없이 바로 이야기 하였다. 영어 학업 성취도 점수가 낮은 학생도 이상적 제 2언어 자아가 높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6학년에서는 영어 학업 성취도 점수가 높은 학생들은 대부분 매우 구체적으로 자신이 미래에 영어를 쓰는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 6학년 학생 중 가장 성적이 낮았던 6C만이 미래에 영어를 쓰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본 적 있냐고 물었더니 “글쎄요. (7초 뒤) 설명을 해주거나 그럴 때, 외국인들에게 음식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참고할 때요”라고 머뭇거리며 답하였다. 영어 학업 성취도 점수가 높았던 6학년 학생들이 매우 즉각적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로써 3학년과는 달리 6학년 학생들의 영어 학업 성취도에 이상적 제 2언어 자아가 중요한 요소임을 인터뷰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뷰에 응한 6학년 학생의 경우, 영어 학업 성취도 점수와 크게 상관없이 대부분 국제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6학년 설문 결과에서 영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영어 학습 동기 요인으로 국제적인 자세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에 응한 3학년 학생들 중에서 가족의 지지가 없는 3C, 3E는 영어 학업 성취도 점수도 낮은 편이었지만, 가족의 지지가 있는 3A, 3I의 경우도 영어 학업 성취도 점수가 낮았다. 따라서 가족의 지지의 유무가 영어 학업 성취도 점수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6학년 학생의 경우, 가족의 지지가 있는 9명의 학생 모두 영어 학업 성취도 점수도 높았다. 이는 6학년에서 가족의 지지가 영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6학년 학생의 경우, 가족의 지지가 이전 학년부터 줄곧 있어온 것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제 2언어 자아, 국제적인 자세 및 가족의 지지가 초등학생 3학년과 6학년의 영어 학습 동기 및 영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 학습 동기 요인 중에서 이상적 제 2언어 자아와 가족의 지지는 6학년이 3학년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 중 이상적 제 2언어 자아는 6학년 학생의 경우, 장래 희망과 관련하여 매우 구체적이었으나 3학년 학생들은 장래 직업과 관련 없이 외국인과의 일상 대화 상황을 떠올리고 있었다. 가족의 지지 측면에서는 가족들이 6학년에서는 조언자로서, 3학년에서는 리더로서의 역할이 보다 우세하였다. 둘째, 3학년과 6학년 학생들 모두 동기화된 학습 행동과 유의미하게 큰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이상적 제 2언어 자아, 가족의 지지, 국제적인 자세였으며, 이 중에서 특히 이상적 제 2언어 자아 및 국제적인 자세와의 상관관계가 높았다. 셋째, 3학년과 6학년에서 이상적 제 2언어 자아는 국제적인 자세와 가장 크게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가족의 지지는 3학년과 6학년 모두 이상적 제 2언어 자아와 가장 크게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넷째, 3학년 학생들의 영어학업 성취도에 필연적 제 2언어 자아는 부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국제적인 자세는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 이와 달리 6학년 학생들의 영어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영어 학습 동기 요인은 이상적 제 2언어 자아와 가족의 지지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3학년과 6학년의 영어 학습 동기 및 영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영어 학습 동기 요인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이상적 제 2언어 자아는 영어 학습 동기뿐만 아니라 6학년의 영어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영어를 하는 외국인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쉽지 않은 한국에서 이상적 제 2언어 자아의 존재는 영어 학습의 동기를 높여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이상적 제 2언어 자아를 높이기 위한 수업 방법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뷰 결과 이상적 제 2언어 자아가 높은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 직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상황을 그리고 있었듯이 교사는 학생들에게 장래 희망과 관련하여 영어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그려볼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하거나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을 예시로 보여줄 수 있다. 수업 시간에 배운 영어 표현을 가상으로 미래에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지 만화로 그려보기, 역할극으로 꾸며 보기, 일지 쓰기 등의 활동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반대로 필연적 제 2언어 자아가 강할수록 특히 3학년의 영어 학업 성취도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교사나 부모가 영어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거나 영어 학습에 대한 압박을 주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국제적인 자세가 이상적 제 2언어 자아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3학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학생들이 영어를 국제어로서 인식할 수 있는 자세를 갖게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사는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국제 사회에 보다 관심을

갖고 여러 나라 사람들과 의사 소통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수업 활동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영어 학습에 있어 가정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정은 영어 교실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이 연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학생의 영어 학습 동기 및 영어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영어 학습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가족의 지지는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이러한 교육적 시사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한 후속 연구를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인천, 경기 등 특정 지역의 초등학생 3학년 및 6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다양한 지역과 학년을 대상으로 한다면 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영어 학습 동기 요인으로 제 2언어 자아, 국제적인 자세, 가족의 지지만을 고려하여 영어 학습 동기 및 영어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는데, 다른 영어 학습 동기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영어 학업 성취도는 학교별로 실시되는 1학기 기말 지필고사의 영어 점수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학교별로 평가기준이 다를 수 있고, 4기능이 고루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4가지 기능을 평가하는 보다 표준화된 평가를 영어 학업 성취도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보다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영어 학습 동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초등학생의 영어 학습 동기가 교사의 동기 유발 전략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한 연구이다. 둘째, 초등학교 각 학년의 교재, 지도 내용이 영어 학습 동기 및 영어학업 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초등학생의 영어 학습 동기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동기 요인과 관련하여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제 2언어 자아, 국제적인 자세, 가족의 지지를 중심으로 초등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 및 영어학업 성취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및 관련 후속 연구들은 우리나라 혹은 영어를 제 2언어로 가르치는 환경에서의 초등영어교육 및 초등영어 교사교육에 관한 실제 및 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윤지영, 김태영. (2012). 영어 학습에 대한 부모의 학업기대유형과 학생의 영어 학습 동기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영어교육연구*, 24(1), 211-233.

- Al-Shehri, A. S. (2009). Motivation and vision: The relation between the ideal L2 self, imagination and visual style. In Z. Dörnyei & E. Ushioda (Eds.), *Motivation, language identity and the L2 self* (pp. 164-171). Bristol: Multilingual Matters.
- Csizér, K., & Dörnyei, Z. (2005). Language learners' motivational profiles and their motivated learning behavior. *Language Learning*, 55(4), 613-659.
- Csizér, K., & Kormos, J. (2009). Learning experiences, selves and motivated learning behaviour: A comparative analysis of structural models for Hungarian secondary and university learners of English. In Z. Dörnyei & E. Ushioda (Eds.), *Motivation, language identity and the L2 self* (pp. 98-119). Bristol: Multilingual Matters.
- Dörnyei, Z. (2005). *The psychology of the language learner: Individual differenc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Mahwah, NJ: Lawrence Erlbaum.
- Dörnyei, Z. (2009). The L2 motivational self system. In Z. Dörnyei & E. Ushioda (Eds.), *Motivation, language identity and the L2 self* (pp. 9-42). Bristol: Multilingual Matters.
- Dörnyei, Z., Csizér K., & Neméth, N. (2006). *Motivation, language attitudes and globalisation: A Hungarian perspective*.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Gardner, R. C. (1985). *Social psychology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The role of attitudes and motivation*. London: Edward Arnold.
- Higgins, E. T. (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3), 319-340.
- Kim, Chunyong. (2011). *The L2 motivation of Korean middle school learners of English: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L2 motivation, L2 self, and international postu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Kim, Inyoung. (2008). Motivational structures among learners with different levels of L2 proficiency: The case of Korean young learners of English. *English Teaching*, 63(1), 101-129.
- Kim, Yoon-Kyoung, & Kim, Tae-Young. (2011). Gender differences in Korean secondary school students' learning styles and L2 motivation.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8(2), 51-71.
- Kormos, J., & Csizér, K. (2008). Age-related differences in the motivation of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Attitudes, selves, and motivated learning behavior. *Language Learning*, 58(2), 327-355.
- Lamb, M. (2007). The impact of school on EFL learning motivation: An Indonesian case study. *Tesol Quarterly*, 41(4), 757-780.
- Murray, B. (2007). Classroom motivation of Korean EFL students from the perspective of self-determination theory. *English Teaching*, 62(4), 391-409.
- Pae, Tae-Il. (2007). Why do they want to learn English?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English Teaching*, 62(2), 177-191.

- Papi, M., & Abdollahzadeh, E. (2012). Teacher motivational practice, student motivation, and possible L2 selves: An examination in the Iranian EFL context. *Language Learning, 62*(2), 571-594.
- Ryan, R. M., & Deci, E. L. (2000).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Classic definitions and new direc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1), 54-67.
- Ryan, S. (2009). Self and identity in L2 motivation in Japan: The ideal L2 self and Japanese learners of English. In Z. Dörnyei & E. Ushioda (Eds.), *Motivation, language identity and the L2 self* (pp. 120-143). Bristol: Multilingual Matters.
- Taguchi, T., Magid, M., & Papi, M. (2009). The L2 motivational self system among Japanese, Chinese and Iranian learners of English: A comparative study. In Z. Dörnyei, & E. Ushioda (Eds.), *Motivation, language identity and the L2 self* (pp. 66-97). Bristol: Multilingual Matters.
- Vandergrift, L. (2005). Relationships among motivation orientations, metacognitive awareness and proficiency in L2 listening. *Applied Linguistics, 26*(1), 70-89.
- Yang, Eun-Mi. (2011). Korean college students' English learning motivation and listening proficiency.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7*(2), 93-114.
- Yang, Jin-Suk, & Kim, Tae-Young. (2011). The motivational self-system and perceptual learning styles of Chinese, Japanese, Korean and Swedish students. *English Teaching, 66*(1). 141-162.
- Yashima, T. (2002). Willingness to communicate in a second language: The Japanese EFL context. *Modern Language Journal, 86*(1), 54-66.
- Yashima, T. (2009). International posture and the ideal L2 self in the Japanese EFL context. In Z. Dörnyei & E. Ushioda (Eds.), *Motivation, language identity and the L2 self* (pp. 144-163). Bristol: Multilingual Matters.

부록 1

설문지

_____ 초등학교 _____ 학년 _____ 반 이름: _____

안녕하세요? 이 조사는 한국 초등학생들의 영어 수업 혹은 영어 그 자체에 대한 생각들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결과는 본 연구에만 사용되므로 여러분의 응답 내용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이나 개인정보의 유출은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유의사항: 절대 시험이 아니므로 모든 문제에는 맞거나 틀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한 뒤 자신의 생각에 가장 가깝다고 느끼는 것에 동그라미(○) 표시해 주세요.

(예) 만약 여러분이 양파를 매우 싫어한다면 ‘절대 아니다’에 아래와 같이 동그라미를 하면 됩니다.

(5=매우 그렇다, 4= 그렇다, 3=그럴때도 있고 아닐때도 있다. 2=아니다, 1=절대 아니다)

내용	5	4	3	2	1
나는 양파를 좋아한다.					○

응답결과가 본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작성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	5	4	3	2	1
1. 영어를 쓰는 나라(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사람들을 좋아한다.					
2. 영어를 잘하면 좋은 직업을 얻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3. 우리 가족은 내가 영어를 가능한 많이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4. 영어를 잘하면 전 세계 많은 사람들과 의사 소통할 수 있으므로 영어를 공부하고 싶다.					
5. 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					
6. 외국인과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떨릴 것이다.					
7. 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한다.					
내용	5	4	3	2	1
8. 영어권 나라(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영어 공부를 한다.					
9. 나는 나중에 내가 가진 직업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생각해보곤 한다.					
10. 내가 영어 시험을 못 본다면 가족이나 선생님께서 실망하시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한다.					
11. 나는 외국 친구들과 영어로 이야기 하는 모습을 생각해보곤 한다.					
12. 내가 영어를 잘하면 친구들이 나를 부러워할 것이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한다.					
13. 우리 가족은 내가 영어를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영어책을 사준다.					
14. 영어를 잘해서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다.					

15. TV나 라디오에서 영어가 나오면 열심히 보거나 듣는다.				
16. 영어 시험을 못 보면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혼나기 때문에 혼나지 않기 위해 영어를 공부한다.				
17. 난 여러 과목들 중에서 다른 것보다 특히 영어를 열심히 공부한다.				
18.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다.				
19. 나는 외국 여행을 가서 영어를 쓰는 모습을 생각해보곤 한다.				
20. 영어를 잘하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칭찬을 받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한다.				
21. 나는 미래에 원어민처럼 영어를 술술 말하는 모습을 생각해보곤 한다.				
22.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영어를 공부하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영어를 공부한다.				
23. 우리 가족은 내가 영어 공부하는 것을 옆에서 정성껏 봐주기도 한다.				
24. 영어를 잘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25. 우리 가족은 내가 원하면 방과 후 영어, 영어 학원을 보내주거나 영어 학습지를 신청해준다.				
26. 나는 나중에 영어로 이메일을 쓰는 모습을 생각해보곤 한다.				
27. 내 주변 친구들이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나도 친구들을 따라 영어를 공부한다.				
28. 난 솔직히 최선을 다해서 영어를 공부한다.				
29. 나중에 중학교에 가서 영어부가 있다면 신청할 것이다.				
30. 선생님이나 부모님은 내가 영어를 잘해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한다.				
31. 나는 외국에 살면서 외국 사람들과 영어를 쓰는 모습을 생각해보곤 한다.				
32. 한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어가 필요 없다.				
33. 우리 가족은 내가 영어 공부하는 것을 신경 안 쓴다.				

☆ 마지막으로 아래 질문에 솔직하게 자세히 여러분의 이야기를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34. 영어 이외에 다른 외국어를 배운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외국어인지
모두 써주세요. _____

35. 외국에 여행간 적이 있나요? 어느 나라인가요? _____

36. 외국에 잠시 살아본 적이 있나요? 여러 번 있다면 모두 쓰세요.

나라 이름 (예: 미국)	기간 (예: 1년 6개월)	나라이름	기간

--	--	--	--

37. 가족 중에서 내가 영어 공부할 때, 모르는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38. 아래 괄호 안에 쓰고 싶은 말을 써보세요.

나에게 영어는 _____ 이다.

39. 영어를 왜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솔직하게 써주세요.

부록 2

인터뷰 질문

1. 영어를 몇 살 때 처음 배웠나요? 어디서 어떻게 배웠나요?
2. 가족 중에 영어를 실제로 사용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 계신가요?
3. 외국인과 영어 수업 시간 외에 영어로 짧게라도 이야기 해 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몇 살 때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하였나요?
4. 나중에 커서 가지고 싶은 직업이 무엇인가요?
5. 영어를 왜 열심히 공부하고 있나요?
6. 미래에 영어를 쓰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나중에 영어를 실제로 쓸 일이 있을 것 같나요? 어떤 상황인지 얘기해 보세요.
7. 스트레스를 받거나 걱정하면서 영어를 공부한 적 있나요?
8.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서 영어 공부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나요? 어떻게 도와주나요?
9. 요즘은 학교 수업 외에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고 있나요?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Elementary

이연실

서울염강초등학교

157-203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221-22

Tel: 02-2659-4985

E-Mail: hallet@naver.com

안경자
서울교육대학교
137-742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96
Tel: 02-3475-2565
E-Mail: kjahn@snue.ac.kr

Received 15 December 2012

Revised 28 January 2013

Accepted 15 February 2013